

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아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3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 3시 미사후	순교자들의모후 (화) 6:00 P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총구역장 214-597-5553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사랑의 샘 (화) 6:00 PM	울뜨레야 (둘째 일)	알랜, 맥키니 734-845-4984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십자가의 모후 (화) 6:00 PM	구리아 (셋째 일) 12:30 PM	캐롤튼 908-770-8694
구역장회의 (첫째 토) 3 PM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벨기도 (2,3주일) 10시미사후	코펠 469-231-2002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청년회 (토) 6 PM	N. 코펠 972-743-9323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평화의 모후 (토) 3:30 PM	교사회 (일) 9:15 AM	던컨빌 469-328-3831
학부모회 (셋째 일) 1 PM	자비의 모후 (토) 6:15 PM	쿨롬버스기사회 (넷째 일) 1:30 PM	갈랜드 972-795-9706
대건회, 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황금궁전 (일) 11:30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얼빙 214-681-4225
하상회, 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E. 프리스코 972-400-2882
이나시오회, 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E. 프리스코 214-436-3648
사도회, 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 PM	W. 프리스코 469-831-6531
토마스회, 30대 (셋째 토) 4 PM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이나시오영성 (월, 수, 목) 8 PM	E. 플레노 214-316-0701
주일학교&청소년 (일) 10:00 AM-11:15 AM	승리의 모후 (목) 6:10 PM	거룩한 독서 (화) 10 AM, Zoom	W. 플레노 469-544-8703
한국학교 (토) 9:30 AM-12:30 PM	즐거움의 샘(Jr.) (일) 9:00 AM	성경100주간 (수) 8 PM, Zoom	리차드슨 214-770-4047
		성경100주간 (금) 8 PM Zoom	밸리랜치 214-664-0158
		복자제교회 (셋째 일) 5 PM	

교우 업체 소개

<p>Smartec 보안카메라/네트워크/오디오/비디오</p> <p>설치, 수리 및 관리 전문 업체 우병태 라우렌시오 Tel 214-629-2663 info1@onesmartec.com</p>	<p>노바 덴탈 김하운 소피아</p> <p>Tel (817) 462-1022 1231 E. Pioneer Pkwy #101 Arlington, TX 76010</p>	<p>남마리아 부동산 사업체/주택/상가리스</p> <p>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p>	<p>Celebration Co. Wedding, First Communion, Baptism, Prom, Special Occasions</p> <p>11818 Harry Hines #224 Dallas 972-243-2400 www.celebrationdallas.com MON-SAT 10:30-7</p>
<p>NCCDP National Council of Certified Dementia Practitioners</p> <p>'도란도란' 토요일봉사센터</p> <p>Memory Focused Day Care (972) 506-0177 (자원 봉사자모집) 은혜복지센터/KAS협력 www.gracedahs.org</p>	<p>정관장 홍삼 달라스 직매점</p> <p>캐롤튼 H 마트 후문 앞 (214) 483-3838</p>	<p>OK 에어컨 대표 이정기</p> <p>설치 및 수리 (주택/ 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p>	<p>E & K Electric</p> <p>*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p>
<p>살롱 드 아르떼 미용실 (시온마켓 2층)</p> <p>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p>	<p>루시에어로빅스 Aerobics, K-pop Zumba, Pilates, Yoga</p> <p>루시 김 : 972-795-9706 (오전반) 캐롤튼 2640 Old Denton Rd. #200 Carrollton (오후반) 달라스 한인 문화센터 11500 N Stemmons Fwy. #185 Dallas</p>	<p>한라산소주, 대선 화요, 좋은데이</p> <p>텍사스 총판 Tel 917-794-9684 min@eveenterprisellc.com</p>	<p>메디케어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플랜 은퇴연금, 롱텀케어, 생명보험상담</p> <p>유니스 안 (수산나) Tel 469-777-2856 coverus21@gmail.com</p>
<p>조앤박부동산</p> <p>주택, 세입, 이주 정착 솔루션 서비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에이전트</p> <p>박성아 소화데려사 (214) 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p>	<p>MDMartin 스태핑, 컨설팅</p> <p>MARK LEE 사이트 매니저먼트</p> <p>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p>	<p>Shine Learning Center CHRISTY LEE</p> <p>미술 영어 수학 테스트 준비 스템 Carrollton Campus : 214-716-7913 Frisco Campus : 469-535-3333</p>	<p>홍신희중합치과 Midway Dental</p> <p>Fastbraces로 치아교정 3-12개월</p> <p>(972) 241-6862 (972) 800-0448 (Cell) 13740 Midway Rd #506 Dallas, TX 75244</p>
<p>북나리 Book Nara 캐롤튼 H마트 몰</p> <p>7 days open Tel 972-245-2665 이건 "동천홍과 맛객 사이 북도 끝"</p>	<p>Texas Back Institute (TBI) 정형외과 척추(어리, 경추)전문</p> <p>Dr. 안준영 (Junyoung Ahn)</p> <p>469-390-6600 info@texasback.com 500 W. Main St. #380 Lewisville, TX 75057</p>	<p>맑음 헤어살롱 Hair Salon</p> <p>Tel 972-693-6247 코마트 옆</p>	<p>앤드류정 부동산</p> <p>주택/뉴빌더홈 주거용토지/투자용부동산</p> <p>Cell 214-663-8266 Ac.txrealtor@gmail.com 3370 Long Prairie Rd #650 Flower Mound, TX 75022</p>



달라스 성 김대건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2024년 7월 21일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제 259924호

오늘의 전례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3,1-6

[화답송] 시편 23(22),1-3 7.3 ㄴ ㄷ -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서] 에페소서 2,13-18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6,30-34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생활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841	444	612, 791	969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한국어
	일요일	10:00 AM 한국어
		12:00 PM 영 어
		3:00 PM 한국어
평일	화·목	7:30 PM 한국어
	수·금	10:00 AM 한국어

성사안내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고해실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에 신청
성 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부주임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녀	이체칠리아,한베로니카 214-762-5794
사무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서윤교 요셉
팩스	972-484-4628
주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예비자교리	
일	11:00AM - 12:15 PM
성경 공부반	수 7:00 PM (남성반) 이요한 부제
	수 11:00 AM 이체칠리아 수녀
	수 11:00 AM 박비비안나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5:30 PM
	월 휴무
	화·목 12:30 PM - 8:30 PM
	수·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강론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구호가 있었습니다. 1984년 한국교회는 창립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주례로 103위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200주년 준비의 하나로 '사목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3위 시성식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0년마다 신자 수가 100만 명씩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에 100만 명이던 신자는 2020년에는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가 늘어났습니다. 본당은 넘쳐나는 신자로 분가해야 했습니다. 서울과 광주에만 있던 신학교도 늘어나는 신학생을 다 받지 못해서 늘어났습니다.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대구에 새롭게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한국교회가 창립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내세운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빛을"이라는 구호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하느님을 받아들였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이 땅에 하느님 사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느님 사랑이 빛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989년에 한국교회는 44차 '성체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3위 시성식은 우리만의 행사였다면 성체대회는 가톨릭교회의 공적인 행사입니다. 변방에 있던 한국교회는 성체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당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학생이었던 저는 '괘'에서 온 순례단의 안내를 맡았습니다. 브라질의 주교님이고, 세계적인 해방 신학자인 '돔 헬더 까마라' 주교님의 강의를 직접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교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聖者)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조직을 만들자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도 좋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주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44차 세계 성체대회의 구호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

해서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은 연민이 되고, 연민은 조건 없는 나눔이 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공감과 연민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공감과 연민이 힘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감과 연민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는 슬픔과 울부짖음이 없는 세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재물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한없는 연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영적으로 충만한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연중 제16주일(농민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어느덧 2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이기고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기세를 몰아 한국은 이탈리아를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2:1로 이기고 8강으로 올랐습니다. 감독인, 히딩크는 'I am still hungry!'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스페인과 승부차기 끝에 4강으로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붉은 악마'가 되었고, 붉은 셔츠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힘차게 외쳤던 구호와 박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와 "짜짜 짜자작"으로 이어지는 박수였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구호가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던 구호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이라는 구호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맘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 담벼락에도, 동네의 담벼락에도 '국민소득 1,000불과 수출 100억 불'이라는 구호가 신동우 화백의 그림과 함께 그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1980년대에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빨리빨리의 대한민국은 4년 앞당긴 1977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3,475달러입니다. 수출은 1,118억 달러입니다. 소득은 33배가 넘게 증가했고, 수출은 1,00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구호가 있습니다.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입니다. 구호는 목표가 되었고, 목표는 우리에게 할

공 지 사 항

2024년 사목 목표 "친교의 공동체"

- 언제 어느 때나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 성오경을 정성스럽게 하고,
 - 매일 오후 3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
- 레지오 마리아 피정 "성모 마리아" 일시: 8/10 (토) 오전 9시~오후 3시 대상: 전신자, 레지오 단원, 협조 단원 장소: 본당 강사: 주임 신부, 부주임 신부, 이시훈 부제(점심 및 간식 제공합니다.) 문의, 접수: 이순정 미카엘라 469-432-3851
 - 제16회 김수환 추기경배 골프대회 일시: 9/3 (화) 오후 1시 장소: Cowboy Golf Club at Grapevine (대회 전, 후에 점심, 저녁 제공) 추기경님의 정신인 사랑과 일치와 화합을 위한 달라스 교포 골프대회입니다. 팬데믹 이래로 침체되어있는 달라스 동포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고, 가톨릭 전교를 목적으로하는 본당의 자랑스러운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우심을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 환영)

회비: \$150, 8/4일 이후: \$200 (회비를 내셔야 등록이 됩니다.)
접수 마감: 8/15 (목)
접수와 티켓: 사무실, 북나라
문의: 고광범 요한 469-387-9541
john.kko@gmail.com

- 2025년 본당 달력에 신자 업체 광고를 신청받습니다. 마감은 9/8일까지며, 관심있으신분은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비: 일년 \$300 (선착순 12자리)
- 그동안 수고해주신 제26기 사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회장(한재민 야고보), 부회장(이재춘 엘리사벳), 부회장(박연주 베르난도), 총무(박준영 에드워드), 부총무(홍성호 고스마), 전례분과장(남현주 마리아), 구역분과장(심영진 올리안나), 여성분과장(임명애 아네스), 여성부분과장(한경란 수산나), 주일학교장(이숙 글라라), 유스그룹장(이현주 글라라), 청년분과장(이윤호 안드레아), 교육분과장(윤호정 베로니카), 선교분과장(우호선 아네스), 새신자분과장(임혜경 브리짓다), 새신자부분과장(손명애 세실리아), 홍보분과장(이상권 스테파노), 정보기술 분과장(토니 심), 사회사목분과장(김만식 다윗), 관리분과장(송재명 사무엘), 친교분과장(김형성 발타살)

제27기 사목위원 명단	
총회장	서울교 요셉
부회장	박준영 에드워드
부회장	김만식 다윗

총무	홍성호 고스마
부총무	장태희 마태오
재평위원장	윤종건 마이클
관리분과장	이재훈 마르첼리노
교육분과장	이선영 안나
구역분과장	정수은 로사
사회사목분과장	이상엽 안토니오
새신자분과장	손명애 세실리아
새신자 부분과장	임혜경 브리짓다
선교분과장	임진명 요셉
선교 부분과장	천은진 마리아
여성분과장	한순덕 프란체스카
여성 부분과장	심영진 올리안나
전례분과장	남현주 마리아
전례 부분과장	Paul Kim (Paul)
정보기술분과장	Tony Sim (Anthony)
유스그룹장	이현주 글라라
주일학교장	이숙 글라라
청년분과장	김종하 대건 안드레아
친교분과장	주재역 사도요한
친교 부분과장	신은재 안드레아
홍보분과장	이상권 스테파노
홍보 부분과장	박지호 아우구스티노

건축헌금		교무금					
Joseph Traylor Jr. (4)		Max Stephanie Duplant, 황종준, 한원희, 김원희, 박진기, 안나 베인, 송한규, 김패트릭 켈리, 어찬, 손완중, 김부천, 김세길, 박찬병, 채요한, 양기석, 정성문, 정순구, 이명옥, 김덕원, 김진, 조종순, 주재역, 임주희, 박주원, 이수경, 김성두, 김미옥, 김지혜, 노정식, 송광웅, 이석호, 김희성, 유길중, 서준호, 염광수, 심윤정, 김정기, 송정훈, 주덕근, 안영석, 정해현, Rachael Dileone, 정미화, 이모세, 전정지, 장사무엘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건축 계정	\$79,705.87	건축	\$4.00	교무금	\$8,520.00	주일 헌금	\$4,813.00
일반 계정	\$362,537.08	2차 헌금	\$631.00			주일 총액	\$13,968.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33명	수 24명	목 34명	금 28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71명	10시 361명	12시 181명	3시 90명	주일 합계	703명	